

물쓰듯 물을 쓰지 맙시다

조 정 웅 /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물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물질중의 하나다. 특히 사람은 매일 3l 정도의 물을 마시고 있으며 마시지 못할 경우 1주 이내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물은 생활·농업·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재화이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값이 싸고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물관리 여건은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강수량의 3분의 2가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내려 한해동안 내리는 강수량 1,267억톤 가운데 24%만이 이용가능하나 물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 건설중인 용담댐, 남강댐 등 7개 다목적댐이 완공되더라도 앞으로 지역에 따라 물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98년 현재 물부족에 시달리는 환경난민은 2,500만 명에 이르며 2025년에는 물부족사태가 심각해져 전세계 75억 인구중 30억명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보고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한국도 벌써 리비아, 모로코 등 사막국가와 같은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되고 있고, 지금처럼 물쓰듯 물을 쓰면 2011년경에는 연간 367억톤의 물이 필요해 팔당댐 저수용량의 9배인 20억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은 평균 395l로 프랑스 281l, 영국 323l, 일본 357l 보다 많아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물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국민이 생각하는 물문제 해결방법은 댐건설에 의한 공급위주였으나 국민의 물씀씀이가 너무 헤프고, 댐개발적지의 감소와 건설비의 상승, 생태계파괴, 지역주민의 반

대 등으로 댐건설대신 수요관리로 전환하여 물을 헤프게 쓸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무겁게 해야할 것 같다.

어린시절을 섬진강 상류지역에서 보내면서 하천에 흐르는 물을 쓰지않고 비가오면 초가지붕 처마밑에 항아리를 놓고 빗물을 받아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부모님의 절약정신과 '90년대초에 독일 육림지대의 잘 가꾸어진 숲을 보면서 그곳은 적은 양이지만 비가 자주오고 지표수가 풍부한 산림지대로서 물 걱정이 필요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녀 아래에 커다란 물탱크를 설치하고 빗물을 받아 놓았다가 이를 허드렛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동양과 서양의 물 절약방법은 같다는 것을 느낀바 있다.

올해들어 소비자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수도권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수할 때 습관적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47%나 된다고 하니 남은 절약하고 나는 안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물을 많이 사용할 경우 오·폐수가 하천

으로 다량 유입되어 수질악화에 따른 수온상승, 퇴적된 더러운 흙의 부패, 용존산소량의 감소등으로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숲은 물의 고향으로 하늘에서 내린비가 일단 숲으로 떨어지면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풀, 흙, 미생물 등이 물을 저장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속에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비가 그친후에도 계속해서 물을 개울로 흘러 보내준다.

그러나 숲이 없어서 직접 맨땅에 비가 내리게 되면 땅이 패이고 물을 담을수 있는 곳이 없어져 빗물은 곧 강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야만 물도 풍부해지고 땅속으로 들어간 더러운 물도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되므로 수질도 좋아지게 된다.

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석유보다 더 귀한 경제재이므로 물을 절약하는 작은 실천이 자연재앙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을 아껴씹시다.

면도할때 비누질할때 샤워꼭지를 잠그지 않은채 공연히 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 목욕탕 주인이 아님.